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

롬 6:1~4

로마서 1~5장까지는 구원의 기초와 본질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집요하게 사도 바울은 구원의 본질과 기초에 대해 반복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장부터 5장까지 이야기의 요점은 바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구원은 우리들의 선행이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얻어지는 것이며 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에 대한 좌절, 구원에 대한 목마름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구원을 받았지만 능력이 없는 것은 구원을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구원을 믿음으로 받지만 세월이 흐르면 믿음으로 받은 구원을 율법으로 바꾸어 버리는 데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 이유는 인간 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개념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일상적인 경험은 전부 진화론적인 경험입니다. 우리의 경험은 전부 하나님이 없는 경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시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전혀 새로운 사건입니다. 이해될 것 같지만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성령으로 알아지는 것입니다. 인간의 경험과 지식으로는 이 구원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반복적으로 집요하게 이 구원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룩의 과정

이렇게 구원에 대한 기초와 본질을 이야기하고 나서 6장에서 8장까지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축복과 특권과 승리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생활에서 거룩해지며 성화되는 영광스러운 축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장은 8장에 대한 서론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지며 어떻게 이 세상에서 악과 싸워 승리할 수 있으며 거룩한 능력 있는 구원받은 자의 특권과 축복을 받을 수 있게 되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6장 1절을 보십시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 질문은 5장 20절에 나타난 말씀에 대한 질문입니다. 20절에서 사도 바울은 은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 말씀에 대해 사람들이 질문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은혜를 받으려면 죄를 더 하여 한다는 말인가?” 이것에 대해 2절에서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은 어떠해야 합니까? 우리들의 죄는 이미 용서를 받았고 하나님의 자

녀가 되었고 회복되었습니다. 이제는 천국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천국 백성이 된 사람들이 죄가 많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또한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와의 차이는 무엇인가, 그 특권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장 1절에서 우리가 첫 번째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죄와 단호히 결별을 해야한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기 위해 죄를 더할 수 없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아직도 우리 속에는 죄의 문화가 남아 있다는데 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따라갔지만 한참 가다보면 세상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따라갔지만 한참 있다가는 육체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한참 있으면 율법으로 돌아갑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우리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승리하며 살 수 있겠는가, 우리가 어떻게 성화의 과정에 들어갈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죄를 끊어라'입니다. 죄와의 결별을 선언하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에게 죄의 습성이 있습니다. 이것을 인정사정없이 끊으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이러므로 한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를 병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만들고 좌절케 하고 죽게 하는 것은 죄입니다. 죄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시달림을 당한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이 죄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러 죄 용서를 받았다면 오늘 우리 안에 있는 행위의 죄, 육신의 죄, 탐욕의 죄 모든 죄를 끊어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거룩의 길, 구원의 완성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구원의 시작은 죄와의 단절이며 거룩의 삶, 성결한 삶 역시 죄와의 단절로부터 시작됩니다.

죄를 이기는 법

그러면 어떻게 죄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원죄를 다 극복했다면 우리의 행위의 죄, 육신의 죄, 실제적인 죄는 어떻게 끊어 버릴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두 단어를 예민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로마서 1장에서는 원죄를 이야기하며 6장 이후부터는 우리가 실제로 짓는 정욕과 육신의 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죄들을 끊어 버릴 수가 있습니까? 분명한 사실은 자기 힘으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죄 짓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자꾸 육신이 약하여 넘어집니다. 이 죄를 자꾸 지으니 구원은 받았지만 우리는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방법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그 죄를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감추면 절대로 우리 안에 있는 죄 문화와 습성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죄는 드러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폭로하고 사람 앞에서도 폭로하여 죄를 활짝 열어 놓는 것입니다.

제가 이전 교회에 있을 때 어떤 분의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 분은 모태 신앙이었습니다. 그분은 신앙생활은 하는데 담배를 끊지 못했습니다. 금식하고 철야기도를 해도 담배가 잘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한번은 철야기도를 했는데 그분이 교회에 오면서 담배를 사서 양말에다 꼭꼭 숨겨 가지고 오셔서 기도회가 끝나면 피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우

리가 로마서 12장 1, 2절을 공부했는데 그 말씀이 형제의 가슴에 비수같이 꽂혔습니다. 그 분이 철야기도회의 마지막 부분에 자진해서 간증을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숨겨 두었던 담배를 꺼내더니 내 몸을 하나님이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고 했는데 자신은 그것을 못했다고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이 담배를 끊도록 기도해 달라고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 다음날부터 이 형제가 40도가 넘는 고열에 일주일을 아팠습니다.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 후 그분이 제게 와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40도의 고열로 앓고 나니 이제 담배를 피우면 그 맛이 참 씁니다.” 그 후 그는 담배를 전혀 못 피우는 사람이 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 하신 일입니다.

죄가 자신의 힘으로 끊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죄를 어떻게 고백하고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율법이 들어와야 하는 것입니다. 5장 20절에서 말한 것처럼 율법이 오면 죄가 분명해집니다. 숨겨진 죄가 드러납니다. 죄에 대해 예민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더 많아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사도 바울이 처음에 예수를 믿었을 때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없었지만 10년, 20년 지나고 나서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하는 고백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더 나쁜 죄를 지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죄에 대해서 더 예민해지고 민감해졌기 때문입니다.

죄는 죄 스스로 깨닫지 못합니다. 그것을 죄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그 죄가 얼마나 깊은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모르고 살 때는 허공을 치는 것과 같습니다. 무언가 고치고 싶은데, 무엇인가 새로워지고 싶은데 잘 안되는 것입니다. 그 원인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하는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죄들은 속속들이 정체를 드러내기 시작하고 분명해지기 시작하고 감추어졌던 것이 노출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마치 얼굴이 더러운 사람이 자신의 얼굴을 볼 수 없는 상황과도 같습니다. 자신의 얼굴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의 얼굴이 더러운지 아닌지를 잘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거울을 보고 그제야 자신의 얼굴이 얼마나 더러운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쇼크를 받습니다. 율법은 거울과 같습니다. 거울이 죄를 없애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죄가 있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알았을 때 사람들은 충격을 받습니다. 이것은 마치 사람의 몸속에 있던 회충이 어느 날 밖으로 나왔을 때의 우리의 반응과 같습니다. 그 밖으로 나온 회충을 보고 우리는 얼마나 놀랍니까? 그것을 이전에는 가지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몰랐습니다. 이처럼 어느 날 우리들은 우리의 죄를 깨달았습니다. 이전에는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 죄를 알게 되면 정말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을 가끔 봅니다. 어느 날 수양회에서 말씀을 듣다가 성령을 받고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성령의 손이 그를 누릅니다. 죄가 밝혀지기 시작합니다. 데굴데굴 구르고 소리를 지르고 통곡을 합니다. 다른 사람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저 역시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1965년에 수양회에서 비오는 날 사람들이 안으로 들어오지도 않고 비를 맞으며 밖에서 소리를 지르며 울었습니다. 주위에서는 미쳤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사람의 죄를 지적하면 그는 정상적일 수 없습니다. 이렇게 죄가 드러날 때 소리를 지르고 통곡을 하고 눈물을 흘리고 콧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는 새벽기도를 할 때 그렇게 목놓아 우는 사람을 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의 죄가 드러났기 때문입니

다.

죄의 속성 중에 중요한 것은 일단 죄가 드러나면 그 힘을 잃는 다는 것입니다. 죄는 숨어 있는 동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감추어 있는 기간에만 능력이 있습니다. 일단 드러나면 힘이 없습니다. 효력이 떨어집니다. 나는 여러분의 모든 죄가 드러나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 5장 20절에 보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말씀을 오해하고 6장 1절에서 질문한 것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렇게 질문한 사람에게는 두 가지 입장이 있습니다. 첫째는 철저히 구원에 대해 냉소적으로 생각하고 조소하는 것으로 말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말 가지고 장난하는 사람입니다. 둘째는 구원에 대한 오해와 무지입니다.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는 죄를 더 지어야 한다는 말입니까? 2절에서 이 사람들에게 성경은 “그럴 수 없다”라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우리가 성화의 단계, 구원과 축복받은 자의 자리에 들어가려면 죄와 단절을 해야 합니다. 죄와 이별을 해야 합니다. 어떻게 죄를 끊을 수 있습니까? 죄가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죄의 본질을 깨달은 사람은 더 이상 그 화려한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서는 죄의 고백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드러내고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씻어 주시는 것입니다.

죄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또 한 가지의 방법은 죄를 못 박는 것입니다. 그 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3절을 보십시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니라”

죄를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이에 대한 가장 좋은 성경 구절이 갈라디아서 5장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박았느니라”

세례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은 내 죄를 십자가에 못박는 것을 의미합니다. 참 세례는 물에 몸을 담그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물을 뿌립니다. 그러나 진정한 세례는 침례입니다. 몸 전체를 물에 적시는 것입니다. 몸 전체를 물에 담그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죽는 것입니다. 세례식이란 그런 의미에서 영적인 장례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신앙의 고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지 않는 것에 있습니다. 자신은 죽었다고 말하는데 보면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우리 구원의 고민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율법으로 바꾸는 것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하는데 죽지 않는데 있습니다. 3절에서 말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릇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 받은 사람들은 십자가 위에서 죄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잘 안됩니다. 물 속에 들어가야 합니다. 숨을 쉴 수도 없고 답답합니다. 육신이 그렇게 죽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육신을 너무나 존경합니다. 죽은 자 만이 살아납니다. 죽지 않은 사람은 살아날 것도 없습니다. 새로운 사람,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죽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잠깐 기절했다가 다시 깨어나는 것은 아무런 변화가 없이 옛 사람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미운 사람은 그대로 입고 욕심도 그대로 있고 정욕도 그대로 있습니다. 변한 것이라고는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입니다. 헌금도 합니다. 그러나 육신이 정말 죽었습니까? 인격이 변했습니까? 사람이 변했습니까? 교회 나오고 예수 믿으면서 변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 것도 없습니다.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

로마서 1장부터 5장까지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구원의 확인입니다. 그리고 6장부터 이야기하는 것은 그 구원을 받은 자의 삶의 확인입니다. 정말 내가 기록해 졌는가? 내가 정말 변화되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과연 여러분의 삶은 어떤 것입니까?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정말 죽으신 것이 아니라 잠깐 기절하신 정도라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죄가 용서될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돌아가시지 않고 죽은 것처럼 위장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정말 죽었기 때문에 우리 죄가 용서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죽지 않고 죽은 것처럼 위장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예수님은 정말 죽었습니다. 창으로 허리를 찔러서 피와 물이 나왔습니다. 죽은 것이 확인되었고 무덤에 3일이나 있었습니다. 남자 장정 서너 명이 움직여야 할 정도로 무거운 돌이 그 무덤을 가로막았습니다. 정말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진짜입니다. 우리의 구원과 영생은 가짜일 수 있습니다. 죽지 않아서 그럴습니다.

마귀의 권세는 사망 권세입니다.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를 유혹했습니다. 십자가를 지지 말고 메시아가 되라는 유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가운데 계속되었습니다. 마귀의 십자가를 지지 못하게 하는 유혹은 요셉에게도 있었습니다. 요셉이 그 혼인을 그만 두려고 했지만 천사가 개입하여 그것을 막습니다. 마귀의 꾀계는 계속됩니다. 그래서 두 살 아래 어린아이들을 다 죽여 버리도록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마구간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애굽으로 피난시키십니다. 마귀의 유혹은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40일 금식 후에 예수에게로 나타나서 돌을 떡으로 만들라고 말합니다. 이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다면 십자가를 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기적과 능력을 보여주면 사람들이 너를 메시아로 인정할 것이더라는 유혹입니다. 이런 유혹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은 분명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다음에 마귀는 예수를 높은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가서 뛰어 내리라고 합니다. 마귀는 성경으로 유혹합니다. 네가 기적을 일으키는 것을 보면 사람들이 너를 메시아로 인정할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통스럽게 십자가를 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성전에 가서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 세계를 보여줍니다. “네가 나에게 절하면 세상을 다 주겠다.” 예수 그리스도는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당할 수가 없어서 그에게서 떠나 제자들을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에게 공격하다가 실패하고 사람을 바꾸어 가룟 유다를 유혹했습니다. 그리고 마귀는 그가 아끼던 마지막 무기를 사용합니다. 그것은 사망입니다. 로마인, 유대인, 가룟 유다를 동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망 권세로 죽여 버립니다. 3일 동안은 마귀가 승리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무덤에서 예수를 살리셨습니다. 마귀는 여지없이 참패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근거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는 돌아가신 것이 아닙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죽은 것은 마귀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그 안에 내 죄가 죽어 있는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내 죄, 내 모든 정욕과 욕심이 걸려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내 모든 절망과 좌절과 고통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입니다. 내 모든 고통, 내 모든 욕심이 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다시 삽니다. 4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 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이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죄를 못 박아야 우리가 다시 삽니다. 그 때 여러분은 십자가에서 걸어 나옵니다. 그러나 거기에 죄의 시체는 남습니다. 모든 질병, 모든 고통 사망 권세가 십자가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은 살아났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새사람이 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이 태어난 것입니다. 옛사람은 죽고, 걸 사람은 후패한다고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구원이고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여러분의 죄가 드러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숨겨져 있는 모든 죄악들이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죄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를 바랍니다. 예수와 함께 장사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부활하고 죄는 죽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죄는 상관이 없기를 축원합니다. 더 이상 여러분이 죄의 종이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죄의 껍데기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성결할 수가 없습니다. 거룩할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하나님은 여러분을 살리시고 새롭게 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죄의 껍데기는 죽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죄를 십자가의 못 박는 놀라운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려워 마십시오. 담대하게 죄를 끊어 버리십시오. 그래야만 로마서 8장에 나오는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가 있습니다.

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은 죄를 절대로 짓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짓습니다. 그러나 다릅니다. 우리는 죄를 지었을 때 빨리 빠져나와야 합니다. 순간적으로 빨리 멈추어야 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못 박히지 않는 사람은 계속 죄를 짓습니다. 여러분 거룩해 지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죄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바랍니다. 모든 질병도, 고통, 사망도 십자가에 못박고 거룩하고 순결하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승리 속에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함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가 아직도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압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내 죄가 드러나게 해 주시옵시고

내 죄가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해 주시옵소서.

옛 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겉사람은 후패하고 속사람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죄에 담대하게 하시고 죄와 싸워 이기게 하옵시며

날마다 승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 「온누리신문」 제공 - <http://www.onnurinews.com/>